

문학적 기능의 동등성

- 그 몇 경우 -

티모시 월트*

이환진 역**

어떤 한국문학 번역가가 이런 말을 했다. “여러 면에서 번역은 예쁜 꽃을 다른 흙에 옮겨 심는 것과 같다. 여기서 저기로 꽃을 옮겨 심을 때마다 그 꽃을 세심하게 보살피 주어야 한다.”¹⁾ 본 발제에서 나는 이렇게 옮겨 심는 것은 어떠한지 보여주고 싶다. 단지 보여준다고 말하는 편이 나올 듯하다. 강의실은 실험실이다. 시간 관계상 다른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이가 시범을 보이는 것이 실험실 광경 아닌가! 실험하는 이가 하는 것을 단지 지켜보기만 해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배우는 방식이기도 하다. 나중에 그것을 알아챌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발제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시기 바란다. “한국어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다. 또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서공회와 관계를 맺고 일을 하건 또는 다른 기관과 일을 하든지 간에 각자의 상황과 그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성서 번역가는 성서로 대화하는 사람이다. 곧 여러분 모두 성경으로 다른 이와 얘기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가 식구든 다니는 교회의 교인이든 친구든 간에 말이다. 독자가 누구든지 간에 풍요로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하는 일이 우리 모두의 관심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 독자가 친구이든 낯선 이웃이나 원수이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껏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해왔다.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방식으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에 들어 있는 비유나 명령을 실천하는 여러 방식을 말한다.

처음 얘기한 꽃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말한다면 우리가 옮겨 심으려는 꽃은 바로 성경이라는 꽃이다. 이 꽃은 모래사막과 기름진 고지대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아주 튼튼한 꽃이다. 한적한 곳 또는 번잡한 도시에 그리고 개인집 정원이나 마을 들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프리카 지역 번역 컨설턴트

** 감리교신학대학교 초빙교수, 구약학

1) Chong-Wha Chung, ed., *Modern Korean Literature: an Anthology 1908-65* (London: Kegan Paul International, 1995), xiv. 다음의 입장과 비교해 보라. “[시를 번역하는] 일이란 한 언어로 쓴 시를 그 뜻뿐만 아니라 소리까지도 다른 언어라는 흙에 옮겨 심는 일이다” *The Wind and the Waves: Four Modern Korean Poets*, Sung-Il Lee, trans. (Berkeley: Asian Humanities Press, 1989), preface. 다른 흙이란 다른 문화, 지리, 역사뿐만 아니라 “언어”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다.

판에 살고 있는 꽃이다. 이 꽃은 수백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세대 정원사들이 물 주고 가꾸고 다듬고 소중하게 지켜온 꽃이다. 그 꽃을 보고 많은 이들이 기뻐하기도 했고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했으며 위로받기도 했고 도전을 받기도 했으며 괴로워하기도 했고 희망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추는 망가질 수도 있다. 위에서 인용한 번역가들의 말은 어느 특정한 문학 장르의 단편을 읊기면서 한 말이다. 성경 속에는 매우 다양한 장르를 지닌 수백여 본문이 들어 있다. 성서 번역팀은 한 송이 꽃이 아니라 여러 색깔의 다양한 꽃을 아주 다양한 문화라는 흙으로 옮겨 심는 일을 한다. 어떤 꽃은 매우 섬세하게 다듬어진 꽃이지만 어떤 꽃은 거칠고 때로는 그 뿌리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도 하다. 갈뱅의 튜립은 여기 이 꽃밭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건 단지 한 견해일 뿐이다. 그 튜립은 에덴과 사막 가시덤불과 포도원과 갈멜산의 들꽃과 이즈르엘 들판의 겨울 밀과 산악지대의 백향목이 어우러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옮겨 심는 일도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정경이라는 잣대로 쟁 들판 전체를 어떻게 옮겨 심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떤 꽃은 옮겨 심는 과정에서 시들고 말라 심지어 죽기도 하지만 문학적 기능의 동등성(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 LiFE)이라는 성경번역 기법에 관심 갖는 이들은 아롱다롱 온갖 색깔을 띠고 있는 성서본문을 될 수 있는 대로 잘 보존하려 노력한다. 이런 기법 가운데에서도 어떤 기법은 다른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보이는 시범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번역이라는 “정원 가꾸기”를 그만둘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의 문화 토양에 더 잘 맞는 방식을 찾아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장르와 구성

문학적 기능의 동등성 기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원문의 장르에 따라 번역하는 일이다.²⁾ 본인이 편집한 『성서 번역: 여러 틀 이론』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읽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틀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그 장르가 중요한 까닭이다. 어떤 장르를 택할까 하는 것은 본문을 생산해 내는 이의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다. 이 점은 앞의 책 가운데 성서의 문자적

2) “장르”라는 말은 전달하려는 목표와 구조와 스타일의 관점에서 다른 유형과는 구별되는 문학 유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글에서 논하는 여러 장르의 예로는 감사 기도문, 개인 찬양시편, 계보 그리고 따라야만 하는 규정 등을 가리킨다.

번역이라는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다. 그런 까닭에 이 글에서는 이론적인 논의보다는 이 장르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좀더 밝혀보려고 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보다는 성경본문의 장르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이유가 좀더 또렷해지리라고 기대해 본다.

성서본문의 장르와 그와 관련된 것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은 글뿐만 아니라 그림과 같은 것을 본문에 집어넣어 판형을 짜는 것이다. 이러한 수단이 다른 곳에서는 오래 전부터 활용되어 왔지만 성서번역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번역을 하면서 본문의 장르를 드러내는 판형을 편집하는 일에 관심을 덜 기울였다.
- 2) 판형 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줄 모델이 없었다.
- 3) 판형 짜기 연습이 충분하지 않았다.
- 4) 심리적으로 판형 짜기가 성가시고 지루하고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는 부담을 준다.

이 워크숍의 다른 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심리적 부담은 여러 새로운 전달매체를 동원할 때 사라질 것이다. 주석 성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러한 부담이 줄어든 것이 또한 사실이긴 하다. 독자들이 읽기 편하게 여러 종류의 삽화가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난하주 대신 난외주를 많이 달기도 한다. 또 글의 주제를 표시하여 이해하기 쉽게 해놓기도 했다. 부록이나 용어집을 줄이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이러한 여러 도구가 성서본문을 번역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미래의 성서번역가들이 이전 번역가들과는 달리 판형을 짜는 일 등에 제한받지 않는다면 성서 본래의 장르를 잘 살리면서도 독자들이 읽기 편한 번역은 어떤 번역이어야 할까?

시문(詩文)에서 말하는 이와 대화 상황을 드러내기

시편 66편을 문학적 기능의 동등성(LiFE) 원칙으로 번역해 본다. 전통적인 번역에는 이 시편이나 다른 149개 시편과 그 편집 체제가 다르지 않다. 곧 전통적인 번역을 보면 시편 66편도 다른 시편과 마찬가지로 말하는 이 한 사람만 등장한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요즘도 회중은 시편 교독을 사회자와 함께 한다. 이 시편 역시 다른 시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사회자가 한 절을 읽으면 교인들도 한 절이나 한

구절을 번갈아가며 읽는다. 시편 하나를 모두 그렇게 읽는 것이다. 그런데 문학적 기능의 동등성(LiFE)으로 이 시편을 옮겨놓으면 다른 번역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옛날 예배를 드릴 때의 그 분위기를 될 수 있는 한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다. 곧 현대 독자들이 옛날 독자들과 똑같은 분위기를 느끼며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놀라운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세요.
놀라운 그분의 임재를 찬양하세요.

예배자 님 하시는 일 엄청나네요!

사회자 님 앞에서 모든 이가 절하죠.
 님께 노래하죠. 님 이름을 노래하죠.

음악 간주

사회자 오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사람들이 강을 건넌다. 발이 젖지 않는다.

예배자 이런 일로 우리는 기뻐요.

사회자 힘차신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다.
 님은 못 나라를 찬찬히 뜯어보신다.
 그분 앞에서 건딜 수 없어.
 그 원수들은 굴복한다.

음악 간주

사회자 사람들아!
말하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신다.
 그분은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라.

예배자 하나님!
 님은 우리를 은처럼 다루셨죠. 더러운 것 없애야만 하는 은 말이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짐승 취급하셨어요. 우리는 물과 불 속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하지만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죠.

이 몸이 시련 당할 때님께 이렇게 맹세했죠. 날 구해주시기만 한다면
내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실한 놈을 드리겠노라. 그 맹세 지키려고
이렇게 님의 집에 왔어요. 님께 들소와 숫양과 염소를 드리죠.

예물을 드림

사회자 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아. 날 위해 하신 일 들어보라.
꼭 대답하시리라 확신하여 그분께 소리 질렀다. 도와주세요.
영똥한 맘먹고 소리 지른다고 그분이 대답하실까?
하지만 그분은 내게 대답하셨다. 하여 난 님을 찬양하리.
내 기도를 들어 주셨으니! 온 정성 다해 날 돌봐 주셨으니!

많은 시편이 예배 때 사용된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 역본의 시편에는 이러한 특징이 감추어져 있다. 곧 대부분 번역 성서에는 시편 본래의 장르와 그 특징이 잘 살아나 있지 않다는 말이다. 시편을 꼭 예배용으로만 번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어떤 특정한 시편이 본디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잘 모를 뿐더러 말하는 이의 말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그 정황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가(雅歌)도 잘 모르긴 마찬가지이다.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아가가 드라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아가 본문에 나오는 말하는 이들이 모두 얼마인지 또 어디까지가 누구의 말인지 확실히 알 수 없긴 하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 역본들이 말하는 이와 그들이 이야기한 부분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구분하여 나누어 놓으므로 본문의 뜻을 좀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모놀로그 형식으로 번역해 놓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낫다.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사전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적절하게 성서를 번역할 수 있다. 사실 성경의 그 어떤 책도 그 단어나 문장을 확실히 알고 번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이란 그저 최대한도로 추측하여 번역한 것일 뿐이다. 곧 누구나 받아들이는 추측 말이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번역 원칙에서 보자면 확실한 것은 사실 아무 것도 없다. 문학적 기능의 동등성(LIFE) 원칙이란 학자들의 가장 훌륭한 연구를 따라 본문의 문법적 분석과 장르와 당시 상황을 깊이 고려하여 성서를 번역해 내려고 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전통적인 접근만큼이나 본문에 충실하려는 원칙이다. 어찌면 본문에 더욱 충실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대 독자들이 성경 본문을 더 잘 이해하도록 또 그렇게 감상하도록 도움을 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편 66편을 번역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하려 한

다. “셀라”라고 하는 낱말을 “음악 간주”라는 표현으로 두 번, 또 “예물을 드림”이란 표현으로 한 번 옮겼다. 이러한 번역은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번역기법을 반영한 것이다. 원문의 히브리어 표현을 번역문에서 다양하게 옮기는 것이 요즘의 번역 경향이다. 문맥에 따라 어떤 표현이 다른 표현보다 좀더 특별할 수도 있다. 이 시편이 예배 때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그렇게 옮겨 본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는 노래와 예물이 특별히 더 중요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그 속에 스며 있다. 여러 역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쉽” 또는 “잠깐 쉽” 등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학적 기능의 동등성(LiFE) 원칙을 번역에 적용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원칙이 이래야만 한다고 나는 말하지 않고 단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 예를 말할 뿐이다. 문학적 기능의 동등성(LiFE) 원칙으로 성경을 번역하려는 이들이 부딪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이렇다. 풍요로운 성경의 문학적 세계를 풍요로운 모국어의 문학적 세계로 충실하게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다른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예배용 시편인 66편의 번역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가 담겨 있다. 사회자의 목소리와 예배자의 목소리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많은 시편에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서로 다른 주제는 분명히 드러난다.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른 까닭이다. 예를 들어 악인의 길은 의인의 길과는 구별된다. 또는 개인의 맘속 갈등을 드러내는 시편도 있다. 예를 들자면 시편 당하는 이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기도 한다. 하나님이 그 시편 속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말한다. 이렇게 다른 관점은 번역에서보다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더욱 확연하게 구별되기도 한다. 주석가들은 이런 점을 강조해왔지만 번역에서 이러한 구별이 모호해지기도 했다. 문학적 기능의 동등성(LiFE) 원칙은 시문의 이러한 점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시도이다. 시편 13편은 수많은 여타 시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회적 삼각 구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편이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야훼님!³⁾

3) 어떤 번역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옮기기는 쉽지 않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점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그냥 YHWH로 옮긴다. 물론 이 번역어가 문학적 기능의 동등성 원칙에 입각한 가장 좋은 번역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역자 주 - 이 경우 우리말로는 “요드 헤이 바브 헤이”로 밖에는 표기할 수 없으나 번역문에서 문맥의 흐름을 흐트려 놓기에 그냥 “야훼님”으로 옮긴다.)

님은
날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군요. 얼굴을 숨기시다니...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난
곰곰이 생각해보죠. 하오나 슬픔만 밀려올 뿐...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내 원수가
의기양양하네요...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아,
야훼님, 내 하나님! 내 시련을 보셔야만 해요.
시력을 되찾아 주세요. 하여 마지막 잠을 잠자지 않게 해주세요.

내 원수가
환호할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말이죠.
그를 없애는 일도 우리 손에 달렸다 말하겠죠.

난
믿죠.님은 날 애지중지하시는 분임을.
님은 날 도우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이렇게 노래할래요.
“야훼님은 나한테 참 잘 해주시는 분.”

- 시편 13편

모든 시편을 옮길 때 물론 나-님-그들(“그들”은 일반적으로 원수를 가리킴)이라는 대비가 본문에 들어 있다고 해도 꼭 강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비하여 옮길 때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위의 13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시편 14편의 경우는 잔인한 자들이 하나님의 모습과 대비되어 나타난다. 부정적-긍정적 이미지가 대비를 이루며 시편 전체를 수놓는다. 히브리어 본문에 들어 있는 대조라는 문학기법을 번역문에서 행간이를 사용하여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편은 잔인한 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시작한다. 이 경우 잔인한 자들을 말하는 부분을 원편에 치우치게 편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분은 눈에 확 들어오도록 또 잘 읽을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편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잔인한 자들은 생각하죠.
신은 없어.
허무주의가 판을 치죠.

하늘 창문 틈으로
신을 찾는 이 하나라도 있으려나?
궁금하여 야훼님 내려다보시죠.

선을 실천하는 이 하나도 없죠.
모두 다 길을 벗어나죠.
모두 다 썩었어요.

선을 실천하는 이 하나도 없죠.
정말 없어요.

악이 판칠 뿐.
앉아서 그저 먹기만 하죠.
내 백성을 집어 삼켜요.
야훼님 부르지 않죠.
모른 채 해요.
죽음을
아예 신경 안 쓰죠.

의인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

피억압자들이 야훼님께 피하러 애쓰지만 그들은 비웃죠.
“시온에 대체 누가 있기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단 말인가?” 이렇게 비웃죠.

야훼님
포로들 되돌리실 때
이스라엘은
즐거워하리.

- 시편 14편

밀접한 이미지와 어조를 드러내기

시문의 이미지에는 응집력이 있고 의도적이며 구체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원칙과 관련되는 내 주장이다. 곧 연결성이 없고 우연적이며 모호하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책에서 이러한 주장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전 학자들의 연구와는 다른 견해로 1990년대 초부터 나오기 시작한 성서번역 관계 서적에서도 마찬가지로 읽어볼 수 있는 생각이다.

시편 76편을 논할 때, 주석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특히 이 시편의 맨 앞부분은 지루한 문장을 단순하게 죽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을 대부분의 번역본은 무시해 왔다. 오히려 이 부분은 수준 높은 문학기법으로 어떤 생각을 표현하려고 낱말과 순서를 깊이 고려하여 배치한 부분이다. 시온을 지키는 사자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를 드러내려고 그런 문학기법을 동원한 것이다.

『새국제역』(NIV)은 2절(히브리어로는 3절)을 전형적으로 옮긴다. 두 주제어를 “장막(tent)”과 “거처(dwelling place)”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이 구절의 첫 히브리어 낱말은 “오헬”이 아니다. “오헬”은 여행객이나 군인이 임시로 지내는 초막이나 장막을 가리키는 말이다. 창 12:8; 출 26장; 삿 7:13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신국제역』은 여기서 역시 “장막(tent)”으로 옮겼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낱말은 “미슈칸”이나 “모좌브”가 아니다. 이 두 낱말 역시 하늘이나 땅에 있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새국제역』이나 다른 역본도 이 낱말을 그렇게 옮겼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낱말은 “쏘크”와 “메오나”이다. 이 낱말들은 대부분 사자가 사는 곳을 가리킨다. 『신국제역』은 이 낱말들이 쓰인 다른 곳에서 “우리(den)”, “굴(lair)” 또는 “덮개(cover)”라고 정말 그렇게 옮겼다(시 10:9; 욥 37:8; 렘 25:38; 암 3:4).

4절(히브리어 5절)은 마소라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

נָאוֹר אַתָּה אֱלֹהֵינוּ מִהַרְרֵי טָרֶף
 먹이감 언덕들-로부터 힘센-이 당신 놀라운
 “님은 먹이감 언덕에서 오시는 놀라운 분, 힘세신 이.”

많은 역본이 여기서 칠십인역을 따라 읽는다. 그렇지만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사자의 이미지가 이어지는 듯하다. 곧 짐승들이... 먹을 사냥감이 없는... 산에서 되돌아오는 사자의 이미지를 말한다. 야훼의 사자 이미지는 구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미지이다(암 1:2; 3:8; 호 5:4 등). 이사야 31:4도 그 힘을 드러내시려고 사자처럼 시온 산을 찾아오시는 야훼의 이미지, 곧 같은 모티브를 받

영한다.4)

번역가들은 본문에 은근히 암시되어 있는 것을 때로는 분명하게 끄집어내어 옮기기도 한다. “우르(Ur)”라는 말 앞에 “라는 도시(city of)”라는 표현을 첨가한다든가, “도움을 달라고(for help)”라는 표현에 “요청하다(call)”를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번역자는 이렇게 성서본문의 처음 독자들이 느꼈을, 그러나 오늘날 독자들에게는 생소한, 그 감정을 끄집어내어 또렷이 옮기고자 한다. 나도 마찬가지로 숨어 있는 야훼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끄집어내어 이렇게 읽어보았다. 곧 공격자들의 으름장을 격파하려 시온의 굴에서 사자처럼 출현하시는 야훼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보려고 한다.5)

평화 마을 시온에 누워 있는
힘이 센 사자.
그는 날려버린다.
불붙은 화살, 방패, 칼을.

산중에서 적들을 사냥하려 나선다.
싸움에 능하다는 자들 손도 못 쓴다.
그 앞에서 까무러친다.
이런데 그 누가 맞서랴?
그의 분노를 견디랴?
그의 고함소리에6) 기마병들 굳어 버린다.
장군들 숨도 못 쉬게 한다.
임금들 공포에 떠난다.
전쟁은 끝났어.

그분은 우뚝 서신다. 선포하신다. “정의!”
하늘에서 땅까지 울려 퍼진다.
두려움
그리고 고요. (잠시 묵상)

4) M. Tate, *Psalms 51-100*, WBC (Dallas: Word Books, 1990), 261-262, 264.

5) C. Broyles, *Psalms*,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9), 312.

6) “고함소리(roar)”는 히브리어와 비슷한 소리로 옮겨본 것이다. 이 번역어의 히브리어 어근(רעַר)은 흔히 “꾸짖다(rebuke)”로 옮길 경우 소리 전달의 기능을 잘 나타내기는 하지만, “고함소리”가 다른 곳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그 문맥에 잘 어울린다. 사무엘하 22:16을 비교해보라. 이 구절에서 『현대영어역』(TEV)은 비슷한 표현을 “그들에게 고함쳤다(roared at them)”로 옮겼다.

온 누리의 피억압자들 해방 되다.
전쟁은 찬양으로 바뀌고.

이 분이 바로 유다를 아는 그 분이시라.
이스라엘이 떠받드는 그 분이시라.
빛으로 휘황찬란하신 이 -
두려워해야 할 그 이.

님께 가까이 있는 그대
흐뭇하게 해드리리라 약속하라.
그 약속 꼭 지키라.

- 시편 76편7)

사자 이미지는 시편 7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자들이 바로 악인들이다. 의인들은 단지 흠 없이 희생당하는 이들로 나올 뿐이다. 이 시편은 폭력 이미지를 생생하게 겹으로 묘사한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겹 이미지가 나란히 나오는데 대부분 번역에서는 별개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다. 재구성을 통하여 나는 이 점을 분명히 밝혀보려고 한다. 이미지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점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 그런 뒤 시편 전체에 흐르는, 서로 뒤엉켜 있는 이미지, 곧 이미지가 맞물리는 그 어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신개표준역』(NRSV)

『현대영어역』(CEV)

『윌트』(Wilt)

1b 박해자들에게서 날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날 구해주세요. 날 구해주세요.
자들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요.

날 추적하는 모든 목자를 떠난 어린 양, 사냥하는 자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날 구해주세요. 저들이 내 목구멍

2 아니 그러시면 그들은 사자처럼 날 찢어발길 거예요.

2 그리 아니하시면 저들이 날 찢어발길 거예요.

을 넓게 벌려 마구 찢어버리려 하네요.

구해 줄 이 하나 없이 날 질질 끌고 갈 거예요.

제물을 공격하는 사자처럼요, 누구도 날 구해주지 않을 거예요.

3 주님, 아 하나님, 내가 이런 일 했다 3 년 흠 없어요. 주 하나님! 면

내가 죄지어 고소당했다면 약속을 배신한 적이 있다면 내게

내가 직접 잘못을 저질렀다면

4 난 친구를 배신한 적 없죠. 까닭

등 돌린 이라도 잘 못해 주었다

4 동지에게 해(害)로 답례했다면

없이 날 공격하는 원수를 가련히

면 당연하다 여기겠어요. 적이

원수라 해도 까닭 없이 착취했다면

생각지 않은 적도 없어요.

날 사냥하여 쓰러뜨리라 하시

죠. 산채로 날 짓이기게 하세요.

내 시체를 구덩이에 내던지게

7) 역자 주 - 윌트의 영역을 직역하려고 하였으나 우리말이 어색해져서 한계가 있었다. 시의 번역은 윌트의 영어 본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세요.

5 적이 달려들어 날 집어삼키게 하시 5 이런 일 한 적이 있다면 악을 임신하고도 낙태하지 않
 죠. 적들이 추적하여 날 사로잡더라 고 거짓을 낳은 자 제 자식에게
 이 목숨 땅바닥에서 짓밟게 하세요. 도 상관없어요. 죽임을 당하는 건 당연하죠. 제
 바닥에 날 내팽개치게 하세요. 날 죽음으로 몰아붙이라 하시 무덤을 파는 자죠. 제 자식이 거
 죠. 먼지구덩이에 집어던지라 하 기로 몰아넣을 거예요. 두개골
 세요. 에 금이 가죠. 정말 시원해요.

... ..

14 저들이 어찌 악을 잉태하는지 보시죠. 14 못된 자 막 아기를 낳으려는 여 하오나 하나님! 잘 아시죠?
 속임수를 임신했군요. 인 같군요. 이걸 정말 내 경우는 아니죠.
 거짓을 낳았어요. 증오, 속임, 배신이라는 아이 말
 이죠.

15 저들은 구덩이를 파죠. 마구 파내 15 깊은 구덩이를 파는 자들이죠.
 죠. 거기에 빠지죠.
 그렇게 판 구덩이에 빠져버리죠.

16 속임수에 걸려들고야 말죠. 16 일으킨 분란을
 정수리에 휘두른 폭력을 덮어쓰죠. 뒤집어쓰죠.
 저지른 악행이
 그들 머리를 짓이기죠.

나는 이 번역에서 시인을 추적하는 적과 찢어발기는 사자의 행위를 연결시키려
 고 했다. 한 낱말을 “추적하다(chase)”(『현대영어역』)와 “사냥하다(hunt)”(『월트』)
 로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사자”는 동사와 목적어 속에 숨어 있는 주어이다. 내 번
 역어인 “어린 양(a lamb)”은 『현대영어역』(CEV)의 “희생물(victim)”보다 좀더 구
 체적으로 표현한 것이긴 해도 고대 이스라엘의 지리적 사정과 잘 어울린다(삼상
 17:34와 비교해 보라). 더 중요한 점은 이 번역어가 연약한 시인의 흠 없음(3절-4
 절, 10절)과 잘 부합한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어린 양”이 흠 없음이라는 이미지
 를 지니고 있는 까닭이다. “목자를 떠난(away from its shepherd)”이란 표현 역시
 이 이미지의 연속으로, 2절 끝에 나오는 “구해줄 이 없어(and no deliverer)”라는
 문자적 뜻을 드러내는 말이다.

『새개정표준역』(NRSV)이나 『현대영어역』(CEV)이나 모두 “나프쉬”를 “나를
 (me)”로 옮겨 그 생동감이 그 빛을 바랬다.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옮길 수 있듯(욥
 24:12; 시 69:12; 렘 4:10), “내 목구멍(my throat)”이라고 옮기는 편이 더 나올 듯하
 다. 『새개정표준역』(NRSV)은 “파라크”를 “질질 끌고 가다(drag away)”로 옮기면
 서 히브리어 본문에 나오는 동사의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 이럴 경우 그 이미지가
 시간적으로 무척 어색하게 느껴진다. 사자들이 희생물을 먼저 “찢어발기고
 (tearing apart)” 나서 (조각낸 것을?) 끌고 간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은가! 처음 나

오는 동사를 강조하는 의미로 두 번째 동사를 읽으면 어떨까? “파라크”라는 동사를 『새개정표준역』(NRSV)이 스가랴 11:16에서 “발굽까지도 찢어버리는(tearing off even their hoofs)”으로 읽은 것과 『현대영어역』(CEV)이 “뼈조각 조금만 남기고(leaving nothing but a few bones)”로 읽은 것을 비교해 보라.

다른 역본들이 으레 하듯이 『새개정표준역』(NRSV)과 『현대영어역』(CEV)도 히브리어 본문에 나오는 동사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 읽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시편 7편과 같은 시의 경우, 다른 시문과 마찬가지로 교차대구(交差對句)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다.

- A. 도움 요청(1절-2절)
- B. 시인의 흠 없음과 부당한 판결(3절-5절)
- C. 야훼여, 심판하소서!(6절-8절)
- D. 악인을 없앴. 의인을 바로 세움(9절-11절)
- C'. 하나님은 바른 심판관(9절-11절)
- B'. 악인들의 죄와 당연한 판결(12절-16절)
- A'. 찬양(18절)

교차대구의 중심 부분은 시의 주제 부분이다. 곧 바른 판결(C')을 내려달라(C)는 요청으로 악인은 끊어지고 시편 7편의 시인과 같은 의인은 안전하다(D)는 것이다. 또한 악인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의인을 사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구조에서 시인의 흠 없음과 부당한 판결(B)은 악인들의 죄와 당연한 판결(B')에 견줄 수 있다.

히브리어 문장의 기능을 따라 영어로 재구성해 보았다. 곧 B와 B'를 함께 나란히 위치시켰고 C-D-C'를 그 순서대로 시의 끝 부분에 두었다. B와 B'가 긴밀히 연결되는 점은 “당연하다(granted)”⁸⁾ 뜻으로 옮겨 반복하였다. 시인은 자신이 지금 흠 없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거짓 증언과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언급한다. 히브리어 교차대구 구조의 중심 부분은 번역 끝부분에 위치시켜 이 구조의 기능이 영어문장 구조와 잘 어울리게 하려고 하였다. 영어에서는 대개 이야기의 절정이 끝에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문장에서 흔한 이 구조를 재구성할 때 번역가는 어떤 번역학 입장에서서 번역하든지 번역문의 문장을 깊이 고려하여 재구성해야만 한다. 행간 성서의 경우는 물론 예외이다. 예를 들어 5절(히브리어 6절) 끝부분에서 동사-명사구-명

8) 약간 재구성하여 “당연하다(granted)”는 표현보다 “만일(If)” 구조로 대신 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연하다(granted)”라는 표현이 공식적인 주장을 좀더 잘 드러내는 어조로 보인다. 시인이 자신의 경우를 하나님 재판관에게 직접 탄원하는 어조를 말한다.

사구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문장이 영어로는 명사구-동사-명사구가 된다. 이렇게 히브리어 문장구조의 기능을 영어 문장구조에 잘 어울리게 바꾸어야 한다. “추적하게-하시죠 원수가 나를(Let-pursue enemy me)”이라는 구조는 히브리어에서 흔한 구조인데, 이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누가 행위의 주체이고 누가 객체인지가 분명하다. 따라서 영어로 “원수가 나를 추적하게 하시죠(Let an enemy pursue me)”라고 옮기면 이 점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언어 간에는 형태와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장을 재구성하여야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이야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편 전체를 모두 옮기기 전에 어조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대 중동의 여러 기도문은, 끈질기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투가 전형적인 말투이다. 기도하는 이가 자신의 하나님께 신실한데 그의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이에게 왜 충실하지 않느냐 하는 식이다.

야훼님,

님을 내 하나님으로 뽑았죠. 날 돌봐 주셔야만 해요. 도와주세요.

목자를 떠난 어린양 뒤쫓는 사자들처럼 사냥하는 자들에게서 날 구해주세요. 저들은 내 목구멍을 확 찢어버리고 날 산산조각 내려 하네요.

이러면 차라리 괜찮겠죠. 내게 죄 있어 피고인으로 고소 당한다면요. 약속을 어겼다면요. 내게 등 돌렸다고 그 누구에게라도 잘못 대했다면요. 원수가 날 사냥하게 하세요. 산 채로 짓밟게 하세요. 내 시체를 구덩이에 처넣게 하세요.

하오나 하나님! 이건 내 경우가 아니죠.님은 정의를 책임지고 계신 이. 내 원수가 내게 화내고 있는 데 어찌하여님은 화내지 않으시나요? 어찌하여 저들이 칼을 갈도록 그냥 두시나요? 나를 겨누어 시위를 당기고는 불화살을 쏘도록 하시나요?

바름 때문에 우리 모두는님의 성소에 찾아왔죠. 하오니님은 벌써 우리를 떠나셨더군요. 하나님, 돌아오시죠!

우리는님께 기대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어요. 바른 마음 지닌 이들 돌봐주시리라 굳게 믿고님께 기대죠.님은 바른 재판관, 나쁜 마음 지닌 이들 반드시 죄 있다 선언하시죠.

날 먼저 재판하시죠, 야훼님! 난 바르다 흠 없다 확신해요. 하오니 다른 이도 재판하시죠. 범죄자들, 그 잔인함을 우리 중에서 없애시죠. 바른 이들 든든히 세우세요.님은 바르신 분이라는 걸 누구나 알게 하세요.님은 누구나 모든 걸 아시는 이죠.

바르신님을 뵈을 때님을 칭송해야 마땅하죠, 야훼님!님 이름을 마구 노래하죠.야훼님은 최고야! 이렇게 말이죠.

- 시편 7편

깨어짐과 덧붙임 드러내기

앞에서 우리는, 시문에 밀접한 연결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문학 작품 안에는 또한 이미지와 어조가 깨어져 나타나기도 하다. 의도적인 경우 이 깨어짐이라는 문학기법은 드라마틱한 요소이기도 하다. 때로 발전해나가는 주제와 연결되기도 하다. 본문 전체에 효과를 주기도 하고 중요성을 더하기도 한다. 고대 문헌은 때로 사본 자체가 깨어져 있거나 편집을 잘못하여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편집할 때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문학적 내용의 동등성을 드러내려고 작품을 번역하는 번역가는 이러한 깨어짐과 덧붙임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성전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시편의 경우 어조가 갑자기 바뀌는 때가 있는데 이는 본디 삶의 자리에서 그 쓰임이 그랬던 듯하다. 본문 자체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 시편 20편의 경우, 탄원이 “이제 난 알아요(Now I know)”라는 기쁨으로 그 흐름이 갑자기 바뀐다. 아래의 번역에서 나는 여러 주석의 도움을 받아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드러내려 하였다.

모인 이들은 왕에게 인사한다.

야훼께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대에게 꼭 응답하시길.

야훼께서, 그대의 바람은 무엇이든 꼭 들어주시길.

모든 전략이 성공하게 하시길,

야곱을 지켜주시듯 님 이름 걸맞게 그대를 지켜주시길,

시온에서 거룩한 힘을 내리시길,

호뭇하게 해드리려 또 다정스레 드리는 빵이든 수소든

기억해 주시길.

야훼께서, 그대의 바람은 무엇이든 꼭 들어주시길.

그리하시면 우린 님의 승리를 축하하합니다.

뿔내며 님의 이름을 알리합니다.

왕은 자신과 백성이 기다린 신탁을 듣고 선언한다.

야훼께서 응답해 주셨다.

야훼께서 내가, 님 백성 이끌라고 뿔으신 바로 내가 이기게 하셨다.

백성들이 대답한다.

야훼께서는 우리가 꼭 이기게 하신다. 님의 거룩한 무기로.

군마가 아니다.
전차도 아니다.
그 이름, 야훼, 그 거룩한 이름뿐이다.

군마의 다리가 비틀거린다.
전차가 자빠진다.
우리는 이렇게 든든히 서있다.

도와 달라 청할 때
꼭 응답해 주세요!

임금께서 이기시길! - 시편 20편

다른 시편의 경우 귀에 거슬리는 리듬과 이미지가 본문의 장르와 어조를 반영하기도 한다. 시편 55편의 구조는 이런 평가를 받아왔다. “정말 이상하다. 그 주제와 장르가 갑작스레 바뀐다... 불안정한 감정을 드러내듯 그 모티브가 뒤죽박죽이다.”⁹⁾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평가하기도 한다. 주변 사회의 불안정으로 “시인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시인 역시 불안정한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다.¹⁰⁾ 이 “불안정”을 번역에서 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 시편에는 과거와 현재의 이미지가 불안정한 문장과 뒤섞여 있다. 끝 부분에 가서는 불안한 시대에 쓰였을 법한 예문과 확신에 찬 어조가 조금 나올 뿐이다.

하나님, 제발 들어보셔요. 내 일에 상관하세요. 지금 날 떠나지 마세요.
기댈 언덕이 없어요. 불안해요. 너무 슬퍼요.
반감 서린 목소리뿐.

기댈 데 없어 난 숨어요.

잔인한 웃음소리뿐.

기가 죽어요. 걸려 넘어져요. 와들와들 떨려요. 불길한 비 때문이죠.

이런 상상을 하죠. 폭풍을 피해 멀리 훨훨 날아가는
헥헥거리는 밤 바람 피해 빈들 동굴 그 쉼터를 찾아가는 상상 말이죠.

9) S. Terrien,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3), 423.

10) K. Terrien, *Psalms*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1), 139.

하오나 꿈쩍달쩍 못하고 도시에 쳐박혀 난 이렇게 경계하죠.
우릴 감시해야만 하는 이들 말이죠. 군부대의 가학성 변태자들이죠. 밤낮이
없어요.
거리를 휘젓는, 법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범죄자들이죠.

저들을 집어삼키세요, 주님.
그 혀를 찢어버리시죠.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죠. 서로 믿고 함께 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곤 했
죠.
근데 이 친구 날 배신했죠. 내게 침뱉어요. 너무 하더군요. 참을 수 없죠.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락에 떨어지게 하세요.
그 속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기댈 언덕이 없어요. 정말 슬퍼요. 하여 아침, 낮, 저녁마다 야훼께 하소연하
죠. 구해주십사 하고. 이 질곡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
고 말이죠. 님은 분명 응답하시겠죠. 그러시리라 믿어요. 언제나 그러셨으니까
요. 그들 모두 꺾으리라 믿어요.

님께 한없는 영광이 있길.
다정스레 옆드려요.
입으로 드리는 말.
중오심은 믿는 친구의 마음도 후벼 내죠.

사회자 - 우리의 상황이 정말 나쁘다 해도 야훼께서 일하시리라 믿으세요.
언제나 일이 그리 흘러가게 두지는 않으시죠.

예배자 - 하나님, 살인자와 도적이 판치는 날을 짧게 하시죠. 무덤 밑바닥으
로 떨어지게 하시죠.
난 님을 신뢰해요.

- 시편 55편

요약 그리고 여타의 가능성 - 시편 18편

앞에서 우리는 문학적 내용의 동등성(LiFE)의 기본적 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시문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몇몇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시편 18편의 번역을 통해서 이러한 번역기법을 어떻게 더 적용할 수 있는지 문학적 내용의 동등성(LiFE)에는 또 어떠한 가능성이 더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몇 백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번역성경은 절 구분이 없었다. 이러한 전통뿐만 아니라 요즘 전달이론에 근거하여 아래의 번역에서 절 구분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번역과 전통적인 번역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새개정표준역』(NRSV)의 절수를 집어넣어 히브리어본문을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몇 곳에는 각주를 붙였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옮겼는지 그 이유를 밝혔다.

급박한 드라마, 돋보이는 이미지, 환희의 어조, 긴밀성 등 이 시편의 문학적 특성을 살려보려고 노력하였다.

1b-2
 야훼님
 안전의 근원
 구원하는 힘
 영원한 쉼터
 방패
 성채
 해방자
 하나님
 마땅히 찬양 받으실 이¹¹⁾

1a, 3 우리의 끈끈한 연대감은 놀랍네요. 이걸 경험하다니!¹²⁾
 난 하나님께 부르짖죠. 원수에게 당하지 않도록 님은 날 구하시죠!
 4-6 죽음의 신들이 날 칭칭 감았죠. 혼돈의 바다로 밀어넣죠.
 죽음의 문턱에 날 묶어 놓죠. 난 비명 질렀죠. 거룩하신 이여, 도와주세요!¹³⁾

11) 이 시편 전반에 걸쳐 야훼(YHWH)를 언급할 때마다 “이름을 찬양한다(praise names)”고 말한다. 하지만 이 이름을 명제로 번역하는 번역문에서 일일이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시편 3:3; 65:6-7; 68:5-6과 비교해 보라.

12) 1절 상반. “락함”이 매우 예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옮겼다. 곧 “끈끈한 가족 연대감을 경험하다(experience the family bond)”라는 번역으로 아기집에 관련된 이미지에 들어 있는 감성적인 면과 그 관계성을 반영하고자 했다. 1절 하반-2절을 1절 상반 앞에 놓은 이유는 이 시편이 야훼께 드리는 기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한 까닭이다. 1절 상반과 3절은 이 시편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13) 4절-6절. “죽음의 신들, 혼돈의 바다(deities of death, ocean of chaos)”와 “거룩하신 이(The Divine One)”라는 부분은 히브리인들이 “모트(가나안의 죽음의 신)”와 “벨리알(암과 관련이 있는 파멸의 힘)”과 물 이미지(바다와 혼돈의 신 암)와 “거룩하신 이”로 옮긴 “엘로힘(야훼의 호칭으로 이웃 언어들과 함께 쓰는 인접어)”을 그들의 문화-종교적 틀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고려하여 옮긴 부분이다.

님은 내 목소리 들으셨죠.

님은 하늘에, 님의 궁전에 계시죠. 하나 내 목소리 들으셨죠.

님은 화내시어 억지로 나를 포로로 붙잡으시어 폭발하셨습니다.¹⁴⁾

7 땅이 흔들 흔들거리죠.

8-11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이 타올라 님은 하늘 커튼을 열어 제치죠.

그리고는 번개 구름 위로 내려오시죠. 날개 달린 사자-들소¹⁵⁾ 위에 올라타시고 전투장으로 잼싸게 내려오시죠. 시커먼 폭풍이 님을 감싸고 있군요. 하나님의 빛을 가릴 수는 없죠.

12-14

번개불.

우박.

하늘에서 님은 번쩍번쩍 번개를 치시죠.

전사 하나님.¹⁶⁾

우박.

번개불.

님의 무기로 적들은 겁에 질리죠. 사방으로 쏟아놓으시죠.

15 혼돈의 바다를 꿰뚫고 저 바닥 땅의 토대까지 야훼님 몰아내시는 숨길을 내죠.

16-17 님은 저 위에서 아래까지 뺏어내려 날 구하시죠. 날 억누르는 원수들의 증오심, 그것에 벗어나도록 날 낚아채 가시죠.

18-19a 물건들이 마구 떨어져 흩어지죠. 적들은 엉금엉금 기죠. 하오나 야훼님은 내 뒤에 든든히 계셔 날 안전한 쉼터로 데려 가시죠.

14) “화내시어 억지로 나를 포로로 붙잡으신(in anger at the forces holding me captive)”이란 표현은 “죽음의 신들...” 문장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행위 그리고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폭풍신이며 하나님 전사인 야훼는 그에게 도전하는 신들에게 화를 내면서, 가족처럼 깊은 연대감으로 무장한 이들과 함께 그들을 공격한다.

15) “날개 달린 사자-들소(winged lion-bull)”는 복잡하게 생긴 그룹의 이미지를 옮긴 말이다. “피조물”이라는 말로 특화시킬 필요는 없다. 문맥을 살펴보면 초자연적인 존재를 가리킨다는 점이 분명하다. “날개 달린 사자-들소”라는 표현을 “어떤(a)”이란 말로 꾸밀 경우 히브리어와 잘 일치하며 하나님의 하늘 회의 원탁에 함께 앉아 있는 여럿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16) “하나님 전사(Divine warrior)”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여러 이미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그 이미지란 “우박”이나 “번개불”과 같은 것으로, 적들에게 내던지는 하나님의 무기 등을 말한다.

32-34, 36 이렇듯 너는 내게 힘주시요. 사슴처럼 내달리게 하시요. 길고 안전한 발걸음으로 가파른 계곡을 따라 미리 마련해 놓으신 그 완벽한 길 내달리게 하시요. 팔뚝을 힘차게 하시요. 엄청 강한 활 시위라도 당기게 하시요.¹⁷⁾

35 막아내라 너는 내게 방패를 주셨죠.
 나 어디를 가든
 야훼님
 내 곁에 너는 계시죠.
 힘껏 날
 너는 오른손으로 붙드시죠.

37-38, 29 내 적들을 모조리 공격하려 해요. 그 공격을 막아내죠.
 땅바닥에 쓰러뜨려요. 그들은 나뒹굴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죠.

39-40 그들을 제압할 힘을 주시죠.¹⁸⁾
 날 거슬러 일어나는 이들
 짓밟을 힘을 주시죠.

41-42 도와달라 저들은 외치죠. 심지어 야훼님께 외치죠. 그러나 내게 대답하듯 너는 그렇게 들어주진 않으시죠. 그들이 외쳐도 난 아예 무시하죠. 그들을 난 짓누르죠. 짓밟죠. 먼지가 되어 바람에 날릴 때까지.

43a 내란(內亂), 그 한 복판에서
 너는 날 옮겨 놓으셨죠.¹⁹⁾

17) 산문 부분은 왼쪽을 좀 떼어놓아 이야기라는 그 특성을 나타내고자 했다. 이 부분에서 시인은 야훼를 3인칭으로 표기한다(히브리어나 번역도 마찬가지로). “야훼(YHWH)”를 “너(You)”이라는 2인칭으로 부르는 부분은 3인칭으로 부르는 이야기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 한가운데로 몰아놓았다. 번역에서 이렇게 달리 배치한 이유는 시인이 일반 독자와 야훼를 번갈아가면서 언급하는 까닭이다. 곧 시인은 자신이 원위치로 다시 돌아와 승리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먼저 말하고 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야훼께 감사를 드린다.

18) 행갈이를 하면서 “너(You)가 내게 주셨다(You gave me)”를 반복해서 나타냄으로써 그 주제를 강조하였다.

19) “내란, 그 한복판에서 너는 날 옮기셨다(You removed me from a nation’s dissension)”라는 부분은 히브리어 본문(תְּפַלְטַנִּי מִרֵּיבֵי עַם)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옮긴 부분이다. 내전(內戰)을 은연 중에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겨 본 것이다. 이 절까지의 내용은 시인이 외부 세력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하 부분도 마찬가지로 흐름이긴 하나 찬양 부분이 끼어들어 사실 이해하기가 곤혹스럽다. 하지만 이 찬양이 본디 흐름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인은 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던 듯하다. 각각 “굳굳한 사람들(stubborn people)”이나 “반역하는 무리(rebellious people)”라는 『현대영어역』(CEV)이나 『복음성경』(TEV)의 번역어는 좀 심한 듯하다.

43b-45 알지도 못하던 이들을 난 다스리죠. 내 말에 귀 기울이죠.
명령을 내리자 숨어 있던 구멍²⁰⁾에서 밖으로 나오죠. 부르르 떨면서
낮은 자세로 그리하죠. 말라붙은 껍질²¹⁾이라 불러야 할까.

46a 야훼님은 살아계시다!

31b, 46a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뚝 솟은 계곡
내가 경배드리는 해방자시다.²²⁾

46c 하나님은²³⁾
피에 굶주린 적에게서 구해주신다.

47-48 양갓음하게 하신다.
원수들 위에 드높이신다.
못 나라를 내 발 아래 두신다.
엄청난 승리를 얻게 하신다.
뽑으신 왕에게

50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에게 정말 잘해주신다.

야훼님,

님 이름 알리려

49님께 드리는 내 찬양 노래

- 20) “구멍(hole)”이라는 번역어가 “성채(fortress, CEV, TEV)”나 “산성(stronghold, NRSV, NIV)”이라는 번역어보다 이 구절에서 또 이 낱말의 말뿌리(גַּרְמָה)가 함께 등장하는 다른 맥락에서 더 잘 어울린다. 사실 다른 번역어들은 너무 긍정적으로 높고 우람한 이미지만을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원수의 비참한 처지를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곧 진흙 구덩이에서 짓밟히고 나뒹굴어 오물이 되어버린 처지를 말한다. 미가 7:17에 나오는 이 용어 미쓰게렛은 시편 18편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멋진 승리를 거둔 모습을 말하고 있다. 미가 역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을 뱀과 도마뱀이 사는 구멍에 견주어 묘사하고 있다. 이 용어의 말뿌리의 다른 형태는 굴(겔 19:9) 또는 감옥의 감방(사 24:22)을 가리키기도 한다.
- 21) “오그라든 껍질(shriveled husks)”이란 표현은 문자적으로 “그들은 말라붙어 버렸다(they withered)”이다. 이 움직임(לָבַח)은 시편 1:3에도 등장하는 용어이다. 시편 1편에서 의인의 “말라붙지 않음(not withering)”은 “바람에 날려버리는 겨”와 대조를 이룬다(사 1:30의 말라붙은 나뭇잎을 참조 바람). 오그라든 껍질 또는 말라붙은 잎이라는 이미지는 42절의 “바람에 날려버리는 먼지(dust carried off in the wind)”라는 이미지와 잘 들어맞는다.
- 22) 하나님의 이 호칭들은 찬양할 때 부르는 호칭으로 시편 처음부분에도 등장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옮겼다.
- 23) 분사가 계속 되다가 미완료태 동사가 이어서 나오는 이 히브리어 문장구조는 전사이신 하나님의 특성을 목록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앞부분이나 시편 처음부분과도 비슷한 구조이다.

못 나라가 듣죠.

19b-24 도와 달라 외칠 때

야훼님은 어찌하여 적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내 말만 들으실까요?²⁴⁾ 내가 뿔은 길. 님은 호숫해 하시는
까닭이죠. 님 이르시는 말씀은 내 앞길의 안내판이죠.
님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 그 길 벗어나 가지 않죠.
내가 하는 일 꼭 인정해 주시니. 악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이죠.

25-26

야훼님, 님은
신실한 이에게 신실하시죠.
받아들이는 이를 받아들이시죠.
흠 없는 이에게 흠 없으시죠.
뒤틀어진 이를 비트시죠.

28

폭군들 낮 뜨겁게 하시죠.
억압 당하는 이들 귀하게 여기시죠.

30

님 가시는 길 완벽하죠.
님 이르는 말씀 깨끗하죠.

31a 27

신들은 존재할까?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야훼님.

제의(祭儀) 본문인 레위기 번역하기

이미지와 파토스와 드라마로 가득한 시편의 세계를 떠나, 이제 레위기의 수수하고 단조로운 독백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대부분 역본들은 제의 본문인 레위기를 이야기 문체로 편집하여 내놓는다. 따라서 이야기나 잡지의 글을 좋아하는 독자들은 레위기를 읽을 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문체와 내용 때문에 혼란스러워 한다.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

24) 이하의 히브리어 본문은 앞에서 나온 부분이 다시 반복된다. 일종의 길게 늘인 각주라고 말할 수 있다. 부록으로 생각하여 읽었으며, 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앞 부분을 되새기는 결론 부분으로 읽었다. 매우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우주적 싸움과 지상의 싸움, 야훼의 힘과 능력의 찬양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야훼께서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가 하는 지혜의 가르침으로 넘어간다.

가를 할 수 밖에 없다. 곧 재미있는 이야기인 줄 알고 읽다가 금방 흥미를 잃는다. 물론 레위기 본문은 대부분 재미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제의와 법 규정이 가득한 본문이다. 이러한 장르의 본문을 번역할 때에는 독자들이 이런 본문에 걸맞는 적절한 기대와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장르의 본문과는 사뭇 다르게 옮겨야만 한다.

앞서 시문을 생각할 때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편집과 재구성을 잘해야 본문의 성격과 목적에 알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레위기 2장을 예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려고 한다.

내용 전달을 잘할 수 있도록 분석하기

제의 본문인 레위기 2장에는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목적이 있다. 본문의 목적은 뭔가를 알리고 또 그대로 따라 하라고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감성적이고 재미를 더하고 확신을 심어주고 뭔가 애원하는 성격의 본문과는 다르다. 옛 히브리어 본문을 기록한 이들 역시 뭔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분명한 목적으로 본문을 기록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루한 반복이 계속되지만 시문이 반복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시편 13편 앞부분에 계속해서 나오는 “언제까지요?”나 시편 146편의 맨 앞 두 절에 나오는 “야훼님을 찬양하라”는 레위기 2장에 거듭 나오는 표현들과는 그 목적이 다르다. 곧 열다섯 절에 걸쳐 15 번 반복되는 “곡식 예물”이라는 용어나 “남은 곡식 예물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 몫이다. 가장 거룩한 예물로 불로 살라 야훼께 바쳐야 한다”(3절, 10절)는 표현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요나 1장에서 “두려워하다”(5절, 10절, 16절)라는 움직임에 같은 뿌리 말 목적어가 따라 나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이유는 레위기 2장(2절, 9절, 11절, 16절)에서 “불로 살라 바치는 예물”이라는 표현에 때로 “호뭇하게 해드리는 향기”가 함께 나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것과는 달리 그 주제상 훨씬 중요하다.

선원들이 두려워 했다.	불로 살라바치는 예물, 야훼님을 호뭇하게 해드리는 향기
그들은 무척 두려워 했다.	불로 살라바치는 예물, 야훼님을 호뭇하게 해드리는 향기
그들은 야훼를 무척 두려워 했다.	불로 살라 야훼께 바치는 예물... 호뭇하게 해드리는 향기
다.	불로 살라 야훼께 바치는 예물
(요나 1장)	(레위기 2장)

요나서에서 움직씨의 목적어가 처음에는 빠져 있다가 나중에 들어간 것은²⁵⁾ 선원들이 요나의 하나님을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그 주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다. 이러한 기법은 요나 1장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레위기 2장은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로 살라 바치는 예물”이라는 표현이 세 번째 반복해서 나올 때에는 “호뭇하게 해드리는 향기”와 따로 떨어져 나오는데 이는 문체의 문제인 듯하다. 마지막으로 가서는 “야훼님을 호뭇하게 해드리는 향기”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이는 주제상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앞부분에서 이미 잘 얘기했기 때문이다. 구태여 뒷부분에 가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었던 듯하다.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목적으로 기록된 듯한 레위기 2장을 다른 말로 옮길 때 번역가 역시 그 정보의 정확성과 분명성을 잘 드러내어 현대 독자들이 본문을 잘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좀더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다. 번역가는 그 장르에 어울리게 본문을 충실히 재구성하여 기존의 번역에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잘 그 내용과 생각과 이미지를 잘 드러내어야 한다. 다음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을 한번 표시해 본 것이다.

1. 누구든 곡식예물을 야훼께 예물로 드릴 때, ... 예물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3. ... 곡식예물... 4. 곡식예물을 드릴 때, ... 예물로... 5. 그대가 드리는 예물이 곡식예물일 때... 6. ...그 예물은 곡식예물이다. 7. 그대가 드리는 예물이 곡식예물일 때... 8. 그대는 ... 야훼께 곡식예물을 드려야 한다... 9. ...곡식예물... 여러 예물... 11. ... 곡식예물... 13. ... 그대가 드리는 곡식예물들이 ... 그대가 드리는 곡식예물이... 소금을 예물로 드려야 한다... 14. ...곡식예물... 곡식 예물... 15. 그 예물은 곡식예물이다...

1. ...고운 가루... 그 위에 기름... 그 위에 향료, 2. ... 고운 가루와 기름을 온갖 향료와 함께... 4.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또는 ... 기름을 주욱 바른... 5.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6. ... 그 위에 기름을 부으라. 7.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3절 - 남은 곡식예물은 아론과 그 자녀들의 몫으로 야훼께 살라 바치는 예물 중 가장 거룩한 부분이다.

10절 - 남은 곡식예물은 아론과 그 자녀들의 몫으로 야훼께 살라 바치는 예물 중 가장 거룩한 부분이다.

본문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괄호 안에 절수를 집어 넣었다).

25) 역자 주 - 히브리어로는 “(큰) 두려움을 두려워했다”로 직역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목적어라는 말을 윌트가 하고 있다. 이 목적어를 위의 번역에서는 “무척 두려워 했다”로 옮겼다.

1) 주제 - 야훼께 곡식예물을 드리는 규정(1절-16절)

2) 재료

- ㄱ) 모든 절에 해당하는 의무
 - i) 고운 가루 (1, 2, 4, 5, 7)
 - ii) 기름 (1, 2, 4, 5-7, 15, 16)
 - iii) 소금 (13)
 - iv) 누룩 넣지 않음 (4, 5, 11)
- ㄴ) 3절 ㄱ과 3절 ㄴ에 해당하는 의무
 - i) 향료 (1-2, 15-16)

3) 준비 작업

- ㄱ) 해도 안 해도 되는 일
 - i) 날 것 (1-3)
 - ii) 화덕에 구움 (4)
 - iii) 판에 튀김 (튀긴 뒤 부수어 기름을 부음) (5-6)
 - iv) 냄비에 튀김 (7)
- ㄴ) 만물 예물일 경우 - 볶으라 (14)

4) 아론의 후손인 사제들에게 드림 (2, 8, 16)

5) 사제들이 할 일

- ㄱ) 야훼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향으로 한 응큼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운다. (2, 9, 16)
- ㄴ) 남은 곡식 예물은 아론과 그 자녀들의 몫으로, 예물 중 나머지는 야훼께 드릴 것으로 놔둔다. (3, 10)

6) 특별 유의사항

- ㄱ) 누룩이나 꿀은 야훼께 살라 바치는 예물이 아니다. 야훼께 드릴 수는 있으나 제단 위에서 살라 바치는 예물은 아니다. (11-12)
- ㄴ) 소금은 야훼님과 맺은 계약을 상징한다. (13)

이렇게 레위기 2장의 모든 내용과 규정을 대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위의 분석에 근거하여 (물론 이 분석은 여러 주석을 참조한 것임) 아래와 같이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제의라는 이 본문의 장르를 잘 살려 재구성하여 편집하고자 했다.

2 곡식예물을 야훼께 드리는 규정

주재료 - 최상품 가루, 기름, 향료, 소금. 누룩은 넣지 않음!

준비작업

- * 구움
- * 화덕에서 튀김 (튀긴 뒤 부수어 기름을 부음)
- * 냄비에 끓임
- * 만물 예물일 경우 볶으라.

사제들이 할 일

- * 한 응금을 제단 위에서 모조리 태워 야훼를 기쁘게 해드리는 향으로 피운다.
- * 남은 곡식예물은 아론과 그 자녀들 몫으로 남은 예물은 야훼께 드리기 위해 따로 떼어놓는다.

유의사항

- * 누룩이나 꿀은 야훼께 살라 바치는 예물이 아니다. 이들은 야훼께 드릴 수 있으나 제단 위에서 살라 바치는 예물은 아니다.
- * 소금은 그대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상징한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좀 심하다 싶으면 기존 번역처럼 편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읽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훨씬 쉬울 것이다.

2 곡식예물을 야훼께 드리는 규정

어떤 곡식예물이든 드리려면 기름과 소금과 함께 최상품 가루를 써야 한다. 곡식예물을 드릴 때 누룩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 (누룩이나 꿀을 야훼께 살라바치는 예물로 드릴 수 없다. 물론 야훼께 드릴 수는 있으나 제단에 살라바치는 예물로 드릴 수는 없다. 소금은 그대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상징한다.)

요리하지 않고 판이나 냄비에 굽거나 튀긴 (잘게 부순 뒤 기름을 더 부음) 예물을 드릴 수 있다. 만물 예물을 드릴 경우는 볶으라. 요리하지 않거나 볶을 경우 향을 섞어 예물로 드려야 한다.

아론의 후손인 사제에게 예물을 바치라. 이 경우 1) 한 움큼 예물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운다. 야훼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향을 만드는 것이다. 2) 남은 곡식 예물은 뒷다가 야훼께 드릴 예물로 쓰라.

여러 계보

제의 본문이나 법 규정 본문처럼 계보 본문도 이야기식으로 편집하는데 읽기가 그렇게 편치 않다. 역대상 1장-9장은 특별히 모든 역본을 읽어보아도 어렵다. 하지만 이 부분뿐만 아니라 계보가 들어 있는 다른 부분도 현대 독자들에게 친숙하고 뭔가를 알려주는 친절함이 배어나도록 그러면서도 히브리어 본문에 충실하게 옮겨야 할 것이다. 역대상 1:1-42은 다음의 몇 특징을 드러내어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 * 목차가 인종이나 지역 그리고 이름을 나타내는 부분.
- * 지명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하기보다는 현대 독자들이 알아보도록 바꿈.
 - “야반”이나 “마다이”보다는 “이오니아인”과 “페르시아”를 사용함.
 - “페르시아”보다는 “이란”을, “앗시리아”보다는 “이라크”를 사용함.
- * 뜻이 들어 있는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문화적 특성을 살려 이름을 번역하거나 때로는 음역함. 나는 아래 번역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이름과 그 뜻이 비교적 분명한 이름을 번역하였다.
- * 판형 편집은 아래와 같이 함.
 - 이야기나 시문과 다른 장르이므로 구분함.
 - 조직적으로 정보를 제공함.
 - 읽기 편하게 배열함.
- * 히브리어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리려고 여러 모양의 판형(점을 찍은 목록이나 찍지 않은 목록, 도표)을 섞음.
- * 본문 자체를 때로 소제목으로 씌움(예,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가계”).
- * 역대기 사가가 중요한 인물로 보는 이들을 특별히 굵은 글씨로 표기함.

물론 이와 다르게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처럼 정리하는 것이 본디 독자들이 본문을 읽고 이해했을 그 정도만큼 본문을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종 그룹과 지역 등이 그 뜻이름과 함께 마구 뒤섞여 있는 목록을 본디 독자들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²⁶⁾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벳
에녹
므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야벳은 다음 사람들의 조상이다.

- 고멜, 이 사람에게서 앓시리아 인과 아르메니아 인이 나옴.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 페르시아 인들
- 이오니아 인들, 이들에게서 키프로스, 로도스와 지중해의 여러 섬에 사는 이들과 스페인 사람들이 나옴.
- 북서쪽의 리디아, 두발, 메섹, 디라스 사람들.

함은 다음 사람들의 조상이다.

- 구스, 이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들이 나옴.
 - 이디오피아 사람과 수단 사람.
 - 아라비아 인들로 하윌라, 샴다, 샴드가, 라아마 인들.
 - 라아마 인들에게서 쓰바 인들과 드단 인들이 나옴.
 - 니므롯. 세상의 첫 전사.
- 이집트인들, 이들에게서 다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옴.
 - 루드, 아남, 리비아, 나일강 삼각주 지역, 멤피스, 가슬루, 크레테.
 - 크레테 지역 사람들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옴.
- 푸트 인들.
- 가나안 인들, 이들에게서 다음 사람들이 나옴.
 - 시돈(가나안의 첫째), 헛,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왓, 스말, 하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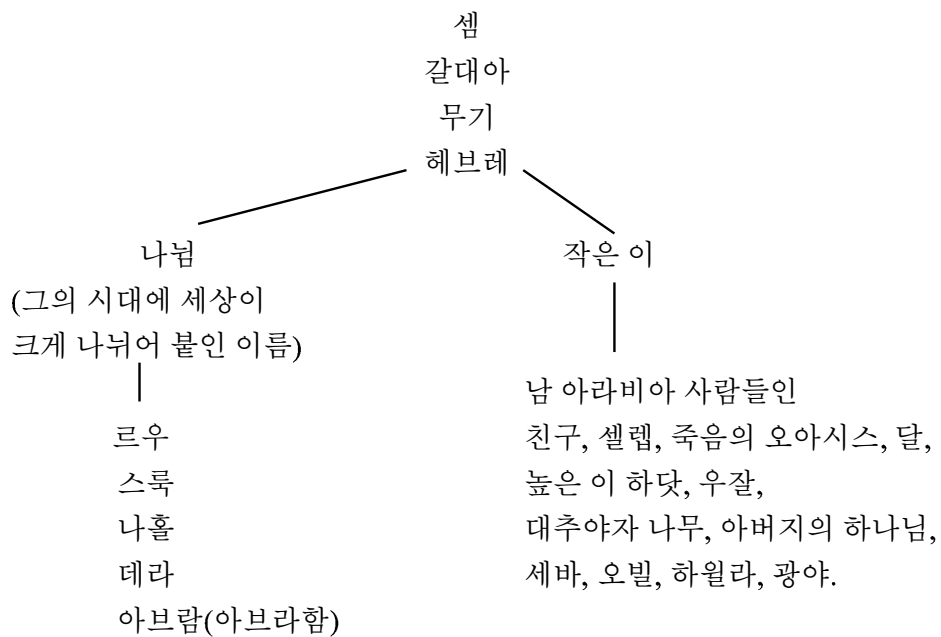
셈은 다음 사람들의 조상이다.

- 엘람

26) 역자 주 - 이 번역에서 고유명사는 월트의 번역 의도가 들어가지 않는 한 모두 『표준새번역 개정판』을 따름.

- 앓수르
- 리디아
- 시리아
- 우스
- 홀
- 게델
- 메섹
- 아르박삿, 아브라함의 조상인 듯함.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



아브라함의 후손 - 이삭, 이스마엘과 그의 첩 그두라가 낳은 아이들.

- 이스마엘의 후손: 느바웃(말아들), 게달, 앓브엘, 밍삼, 미스마, 드마, 맛사, 하닷, 데마, 여두르, 나비스, 게드마
- 그두라의 후손: 시므란, 므단, 이스박, 수아. 스바와 드단의 아버지 욱산. 미디안과 그의 아들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아.
- 이삭의 아들: 에서와 **이스라엘**

에서의 후손

- 엘리바스와 그 아들 데만, 오말, 스비, 가담, 그나스, 덤나, 아말렉
- 르우엘과 그의 아들 나핫, 세라, 삼마, 밋사.

- 여우스
- 알람
- 고라

에서가 살던 세일 지역 출신의 다른 후손들

- 로단. 그의 누이 팀나와 로단의 아들인 호리와 호맘.
- 소발과 그의 아들인 알란, 마나핫, 에발, 스비, 오남
- 시브온과 그의 아들 아야와 아나
- 아나와 그의 아들 디손
- 디손과 그의 아들 하므란, 에스반, 이드란, 그란
- 에셀과 그의 아들 빌한, 사아완, 야아간
- 디산과 그의 아들 우스, 아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름을 주제에 따라 풀어 옮기기

계보의 이름을 떠나 이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름을 주제에 따라 어떻게 풀어 옮길 수 있는지 생각해보기로 하자.

많은 현대역본을 통해서 우리는 호세아 1장과 같은 부분에서 이름을 주제에 걸맞게 그 뜻을 번역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신개정표준역』(NRSV)과 『신국제역』(NIV) 같은 역본에서, 심지어는 『현대영어역』(CEV)에서조차 이름이 처음 독자들이 들었을 때 이상하게 들리는 이름이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번역가들은 독자들을 위해서 그 뜻을 밝히려 하기보다는 그저 번역을 한다.

고멜에게 딸이 있었다. 주께서 이르셨다. “그를 로루하마라 부르라.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⁹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로암미라 부르라. 이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며, 나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까닭이다.”

이름 뒤에 따라 나오는 부분을 통해서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가 이름을 설명하는 부분인지 분명치 않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히브리어 로루하마가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뜻인가?

『복음성경』(TEV)과 같은 역본이 히브리어 본문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셨다. “그를 ‘애물단지’라 부르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사랑하거나 용서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셨다. “그를 ‘내 사람들이 아냐’라고 부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 아니며 나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까닭이다.”

프랑스어 역본들은 문자적으로, 문학적으로 또는 요즘말로 옮긴 것이든 이름의 뜻을 본문 안에 집어넣는 경향이 있다. 이 역본들을 훑어보았는데 본문 속에 이 이름들을 어떻게 집어넣어 처리하고 있는지 잘 알아볼 수 있다.

그를 로-루하마(동정받지 못하는 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라. 더 이상 내가 동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스티 성경, 문자적 번역)

그에게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지어주어라. 곧 애물단지라고. 왜냐하면... (에큐메니칼역, 문학적 번역)

그를 애물단지라고 부르라. 왜냐하면... (현대프랑스어역, 현대어 역본)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들어 있는, 잘 알려진 부분은 많다. “바벨이라고 이름 지으라.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뒤섞어놓으신 까닭이다”라는 구절도 그 한 예이다. 하지만 어떤 부분은 본문의 말놀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독자들이 오해하도록 한 번역도 있다. 그 장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까닭이다. 번역문의 전달 기능이 적절하지 못하여 이야기를 그 장르에 따라 잘 전달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사사기-소박한 역사인가 아니면 그보다 다른 뭔가가 있는가?

많은 역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사기 3:8-10은 역사 본문으로 뭔가를 알려 주기는 하지만 잘 다듬어지지 않은 본문이다.

⁷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여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⁸그리하여 주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거슬러 타올랐다. 그들을 아람 나하라임의 왕 구산 리샤다임에게 팔아넘기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산 리샤다임을 팔년 동안 섬겼다. ⁹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다. 곧 그들을 구한 이는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다. ¹⁰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가 싸우러 나가자 주님이 아람의 왕 구산 리샤다임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의 손이 구산 리샤다임을 제압했다. (『신개정표준역』)

여러 역본(신국제역, 새개정영어역, 현대영어역)이 두 번씩 나오는 고유명사를 한 번씩만 옮겼다. 『복음성경』(TEV)은 그나마 하나로 아예 줄여버렸다.

⁸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샤다임 왕이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다. 그들은 팔 년동안 그의 봉신으로 있었다. ⁹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그들을 해방시킬 이를 보내셨다. 옷니엘이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¹⁰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옷니엘이 싸우러 나가자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어떤 것이 본문에 더 충실한가? 역사가가 과학적인 정확성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옮기기는 했으나 무척 어색하게 보이는 『새개정표준역』(NRSV)인가, 아니면 간결하게 포인트를 집어 옮기면서 다음 사건으로 재빨리 넘어가는 『복음성경』(TEV)인가? 그도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을까? 주석가들과 여러 연구용 성서를 보면 이 본문에는 어떤 다른 차원이 있다는 점을 다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번역을 보면 독자들이 이 점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감추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호세아 1장과 같은 부분에 적용했던 그 기법을 차용하여 위의 사사기 본문은 이렇게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야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거슬러 불타 올라 그들을 시리아 두 강의 왕인 악당 구산의 손에 넘겼다. 팔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당 구산의 노예로 지냈다. 하지만 그들이 야훼께 도와달라고 외치자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구할 해방자를 마련하셨다.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와 아들 옷니엘이 그들을 구한 것이다. 야훼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다. 야훼께서 아람의 왕인 악당 구산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는 악당 구산을 제압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리한 우주적 특성을 지닌 채 계속된다.

“송아지”. 야훼께서 모압의 왕 “송아지”가 이스라엘보다 강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팔 년 동안 송아지의 노예로 지냈다... 이 송아지는 정말 살이 찢 놈이었다... (3:12, 14, 17)

“그가 이해할 왕”. 그 날, 하나님은 가나안의 “그가 이해할 왕”이 이스라엘 사

람들에게 패배하게 하셨다. 그들이 가나안의 “그가 이해할 왕”을 제압할 때까지 그들의 힘이 점점 강해졌다. (4:23-24)

“까마귀와 들개”.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지도자, “까마귀와 들개” 두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까마귀를 까마귀 바위에서, 들개를 들개 포도밭에서 살해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아가 “까마귀와 들개”의 머리를 요단강 부근 기드온으로 가져왔다. (7:25-26)

“제물과 취소된 보호”. “제물과 취소한 보호”는 약 일만 오천 병사들과 함께 갈골에 있었다... 기드온이 올라갔다... 그들의 진영을 공격했다. “제물과 취소된 보호”는 도망쳤다. 하지만 기드온은 쫓아가 이 미디안의 두 왕 “제물과 취소된 보호”를 사로잡았다. 그들의 군대를 절단냈다... 기드온은 그들을 살해하라고 그의 아들에게 명했다. “제물과 취소된 보호”가 말했다. “어서 당신 자신이 그리 하시오...” 그래서 기드온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그들을 제물처럼 잡았다. (8:10-12)

이렇게 이들의 이름은 이 구절의 주제와 맞물려 이들의 운명을 잘 드러낸다.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서 못된 짓을 한”(삿 2:11; 3:7, 12; 4:1; 6:1) 그 결과 두드러진 점은 그들이 이와 같은 ... 지배자들의 희생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주님께 부르짖자”(삿 3:9, 15; 4:3; 6:6, 7) 주께서 지도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악당(The Double Wicked) 왕들에게서 구하시곤 했다. “조공(다른 곳에서 이 낱말은 희생제물을 뜻하기도 함)”을 요구하는 살찐 송아지(Fat Calf)는 제단의 송아지처럼 쉽게 잡을 수 있다. 주님의 적들은 까마귀(Crow)나 들개(Coyote)보다도 못한 위협일 뿐이다. 이 적들의 운명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Protection refused) 제물(Sacrifice)과도 같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맞서 거스르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며 또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 성경본문을 읽는 이들이나 듣는 이들은 이 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곧 그가 이해할 왕(King He'll Understand)보다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으리라.²⁷⁾

사사기에 등장하는 적국 지도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옮길 때 이 본문의 장르와 잘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어색하고 지루하게 기록된 역사 이

27) T. Wilt, “Markedness and references to characters in biblical Hebrew narratives,” C. Myers-Scotton, ed., *Codes and Consequen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93-94. 이 글은 적국 왕들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문학적으로 분석한 글로, 위의 번역처럼 그들의 이름을 번역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 글이다.

야기 속에서 적들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또한 사회정치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주제와도 잘 맞물린다.

이러한 점은 요나서를 번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요나 - 요나 이야기인가 비둘기 비유인가?

위에서 살펴본 사사기 이야기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역본들이 요나서의 앞부분을 마치 정확하게 기록된 역사 이야기인 것처럼 지루할 정도로 옮긴다. 하지만 요즘 학자들치고 요나서 본문이 이러한 생각으로 기록되었다고 믿는 이는 거의 없다. 본문에 들어 있는 이름을 그 장르에 걸맞게 좀 달리 옮기면 요나서의 성격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비둘기²⁸⁾

그래서 그때
야훼께서 사명을 맡기셨다.
비둘기 예언자
신실한 아들에게.
“큰 성 니느웨로
길을 떠나라.
그를 거슬러 외치라.
그 억압이
하늘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비둘기는
반대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저 멀리 바다 건너편으로 향했다.
야훼에게서
도망치는 길이다.

그는 내려왔다.

28) 본인의 2002년 번역 모음집인 *Praise, Prayer and Protest: The David Collection (Psalm 1-72), The ABC's of Grief (Lamentations) and Pigeon (Jonah)*에서 뽑음.

이스라엘 산에서
 블레셋 항구 마을로.
 그는 발견하였다.
 저 멀리 바다 건너편 다시스로 돌아가는 배를.
 배삯을 치렀다.

그는 내려갔다.
 배 안으로.
 선원들과 함께 여행하려고.

그는 저 멀리 바다 건너편으로 향했다.
 야훼에게서
 도망치는 길이다.

그들은 닻을 올렸다.

야훼께서 혼돈의 바다로 썸 바람을 보내셨다.
 혼돈의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신 것이다.

이 부분(과 요나서 전체)을 왜 이렇게 옮겼는지는 다른 지면에서 자세하게 논의하였다.²⁹⁾ 여기서는 다만 이름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만 생각해보려 한다.

비둘기라는 이 이상한 호칭은 이상한 정경 배열 그리고 신탁이 상투적으로 들어 있는 다른 예언서들과 요나서와의 이상한 관계와도 맞물린다. 비유 예언은 시작하는 부분을 읽기만 해도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갈 것인지 금방 눈치챌 수 있다. 호세아의 자녀들 이야기 같이 실생활을 반영하는 이야기이든, 에스겔의 불충실한 이에 대한 비유(에스겔 16장)처럼 그저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이든, 이야기 자체 그 이상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위의 번역의 “블레셋 항구 마을”이라는 표현 그리고 “저 멀리 바다 건너편”이 꾸미고 있는 “다시스”라는 이름은 이야기가 어디서 진행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들로, 처음 독자들이 “욥바”나 “다시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와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옮긴 말이다. “욥바”라는 이름을 설명으로 대치했는데, 이유는 이 마을이 이야기 속에서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스”는 그대로 두었다.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 목적지를 알려주려고 그냥 둔 것이다. “스페인”으로 대치하지는 않았다. 역대상 1장을 번역한 것처럼 처음 독자들과 똑

29) T. Wilt, “Pigeon,” *Bible Translator*, 56:1 (2005), 45-57.

같은 반응을 유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 독자들은 “스페인”하면 따뜻하다든가 관광명소라는 말을 머리 속에 떠올리지 않겠는가?

“바다”는 “혼돈의 바다”라는 말로 바꾸었는데 그 까닭은 독자들이 고대세계의 광대한 수면을 연상하여 그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료 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혼돈의 바다(Chaos' sea)”라고 하면 읽을 때 잘못 읽을 수 (Chao's-s Sea)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분명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그냥 이 번역을 두고 싶다. “혼돈의 바다(Sea of Chaos)”라고 옮기면 이 번역의 의인화 효과나 신 이름으로 바꾼 그 문학적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잘못 발음하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리라.

맺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문헌이라는 외국 식물을 현대의 토양에 심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와중에 어떤 꽃은 말라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문학적 기능의 동등성(LiFE)”이라는 정원 가꾸기 기법은, 성경이라는 정원을 오늘날 독자들이 잘 감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할 것이다. 형형색색의 배열과 다채로운 모습과 다양한 향과 열매 등을 말이다.

이렇게 위에서 제시한 기법은 전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쓸모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어떤 흙 위에서는 물과 정원사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다른 흙에서는 옮겨놓은 식물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깊이 물에 잠겨 죽을 수도 있다. 물론 내가 완벽한 정원 가꾸기를 제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정원 가꾸기 할 수 있구나 하는 흥미를 유발시켰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새로운 한글성서를 번역할 때 말이다. 풍요로운 성경의 세계가 여러 방식으로 풍요로운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잘 접목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성경전서를 번역하든, 아니면 한 가족이나 회중이나 친구나 이방인들이나 여러 다양한 공동체를 위해 어느 한 부분을 번역하든,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번역해 내고자 하는 의욕을 이번 기회를 통해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역자가 사용한 영어 성경역본 명칭과 약어

『현대영어역』(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새국제역』(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새개정표준역』(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개정영어성경』(REB)	Revised English Bible
『복음성경』(TEV)	Today's English Version (Good News Bible)